

불교학 세계화 주도... 근대불교유산 목록화

2013 불교학술·문화재 결산

2013년은 불교학 분야와 문화재 분야 전반에 많은 사건이 있었던 해였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뒤로하고 올 한해 불교학계와 문화재와 관련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결산해 본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관리 부실 파문, 보수 속속 시작
2013년은 문화재 전반에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견됐다. 석굴암 보존본의 부재 갈라짐 현상과 함께 대장경에 대한 재조사, 대장경 중목판 훼손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됐다. 이 중 대장경판은 문화재청에서 대장경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중 손상을 확인하며 2014년부터 보존처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석굴암 상황을 확인하러 오는 등 문화재 보존에 전국민의 관심이 몰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심수년전 준비해온 석가탑과 미륵사지 석탑이 보수에 들어갔다. 특히 석가탑은 1271년 에 전면 해체 보수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기단 내부에서 금동불입상이 발견됐다.

이런 문화재 보존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해외반출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에 반가사유상을 보내는 것을 불허하자 문광부에서 반출을 요구하는 등 흥역을 치른 끝에 결국 전시를 위해 반출된 것.

덕숭총림 수터사 방장 설정 스님이 "정보 문화재를 쉽게 전시하는 일은 국격(國格)을 낮추는 것으로 존경의 대상인 성상이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있다"고 반대사를 밝히는 등 불교계가 반대 입장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가칭)'와 피로도 축적을 통한 반출 한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두고 '갑론을박'

서산 부석사 불상은 1330년경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안치돼 있던 중 지난해 10월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됐다. 일본 정부의 반환 요구에 한국 법원은 2월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불상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부석사와 불교계는 반환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가처분이 확정되고 반출 경위가 조사되는 과정에서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일본 측은 지속적으로 반환을 주장했으며 유진룡 문광부 장관 등이 국제규약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지



2013년 한해 동안 이슈가 된 학술문화재 사건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장경 훼손 파문 당시 긴급조사단의 조사 모습, 로버트 버스웰 교수와 도날드 로페즈 교수의 <프린스턴 불교사전> 발간, 반환 논란이 인 서산 부석사 불상, 금강대와 하버드대의 동양학총서, 부산 현응 스님의 동국대 6억원 기부금 전달식 모습.

탄을 받기도 했다. 또 부석사 불상이 모조품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부석사 불상의 항쟁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족유산 '대장경' 주제 행사 '눈길'

3월 28일에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 등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디지털전산화 작업을 해 온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창립 20돌을 맞았다. 이날 자리에서는 초조대장경 복간본 봉정식이 열렸으며 대장경 전산화에 공로가 큰 이태남 교수, 이어령 前문화부 장관 캠퍼스타트 교수 등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9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13년 한해 동안 이슈가 된 학술문화재 사건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장경 훼손 파문 당시 긴급조사단의 조사 모습, 로버트 버스웰 교수와 도날드 로페즈 교수의 <프린스턴 불교사전> 발간, 반환 논란이 인 서산 부석사 불상, 금강대와 하버드대의 동양학총서, 부산 현응 스님의 동국대 6억원 기부금 전달식 모습.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하는 전국사지 시·발굴 조사사업은 2017년까지 전국 폐사지 중 훼손이 심각한 곳이나 역사·문화·교육 효과가 큰 곳부터 실시된다. 2013년에는 경주 미탄사지와 보성 개홍사지에 대한 시굴사업이 진행돼 미탄사지에서는 토제 나한상 등이, 개홍사지에서는 고려불상 등이 출토돼 사적 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삼천사, 삼척 삼화사 등 옛 절터에서도 현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근현대 불교문화재 '총정리'

불교계는 근현대 불교문화유산을 정리해 목록화하기도 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원을 기부해 장중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동국대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주요 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순위 상승을 이뤘다. 201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는 8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조선일보 QS아시아대학 평가에서는 사회과학·경영학 분야 아시아 41위(국내대학 중에선 9위)의 성적을 거뒀다.

우수학술도서 종교분야 중 불교 '전무'

6월 27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우수학술도서 중 종교분야에서 불교주제 학술서가 단 한권도 없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른 분야까지 통틀어 불교주제 학술서는 3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불교출판진흥회를 비롯한 불교계에서는 선정과정과 심사위원의 종교편향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를 담당하는 출판진흥원은 "일반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웠다"고 답변해 반박을 사기도 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학회 등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학술 진흥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불교학 세계화 해외 명문대학과 진행

불교학계에서 2013년은 세계화가 진행됐다. 동국대가 베이징대, 도쿄대, 타이완대와 2014년 5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워크숍·대회 개최를 하기로 하는 등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한 데 이어 금강대도 하버드대와 동양학 총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협력이 본격화됐다.

여기에 이어진 최대 불교사전인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12월 11일 출간돼 불교영문용어의 정립에 새 장을 열기도 했다. 로버트 버스웰 UCLA대 교수와 도날드 로페즈 미시간대 교수가 펴낸 <프린스턴 불교사전>에는 총 1,304쪽 분량의 불교용어가 수록됐다. 이같은 흐름은 2014년에도 이어질 예정이기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 발간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12월 20일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을 발간했다.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은 총 3권으로 생전 논문, 기고문, 단행본 등을 비롯해 미발표된 원고 등이 함께 실렸다.

이와 함께 반야로차도문화원은 문집 발간과 개원 30주년을 기념한 생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문비봉정과 문도 공로패 수여, 공수선차도 시연, 차담회 등이 진행됐다.

채원화 원장은 "효당 최범술 스님은 한국차문화를 중흥시킨 이"라며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한국차문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성과를 점진하고 새로운 차도인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한국 차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차도인으로 안전재 서강대 교수가 선정돼 효당차문화상을 수상했다. 또 화림 김춘희, 화정 최화정 씨 등 6명에게는 반야로 문도 공로패가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학계 '파벌' 로 이익집단화 되고 있다"

홍선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세미나서 제기

"학계에 학문의 세계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파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대학 선후배 동창 그룹이 있으며 학문적 동료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이다."

前불교중앙박물관장 홍선 스님은 12월 13일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정인)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불교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불교고고학의 성립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스님은 "그룹의 동료, 선후배, 스승이 논쟁의 상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털어놓았다.



스님은 "학회나 학술대회 같은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도 비판과 공격의 대상은 자기 그룹에 속한 동료와 선후배, 스승이 논쟁의 상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조금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이런 모습을 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도 독점해 연구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며 "공개와 논의 등 열린 자세를 통한 진정한 불교학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중앙박물관, '한국서지학' 학술회의

천태종 중앙박물관(관장 보광)은 12월 21일 서울 관문사에서 '한국서지학의 회고와 전망, 그리고 쟁점'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고산 천혜봉 선생 도서 기증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치우 경성대 명예교수의 '천혜봉 선생과 한국서지학'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강순애 한성대

교수의 '향산삼제법 칠언절구의 구성내용과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김상호 대구대 교수의 '실록자의 보자에 관한 쟁점' △한상봉 한국서예금석문화연구원소장의 '서기 이씨와 보정사목활자' △차광호 불교천태종중앙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삼국유사의 저술목적과 편찬주체 검토'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사 연구논집> 펴내

한일불교유학생협회(회장 현해)는 조계종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조계종사 연구논집>을 발간했다. <차주상보>

한일불교유학생협회는 12월 20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조계종사 연구논집> 발간을 기념해 제 5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일불교유학생협회 상임

공동대표 현해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와 총회, 학술세미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한국불교 조계종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전국 조계종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근현대 조계종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진로·적성·상담 안내

C.A.C 분석서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진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결제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흥연 (010-7925-4749)

인재 양성



동방대문화교육원 2014년 학습진로상담사과정 모집

▶ 3월 개강 ◀

◇ 저서 : 규명 1권 : 명리입문자용 (한숨미디어)
규명 2권 : 명리상담술 (한숨미디어)
규명 3권 : 진로와 전공 (한숨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금요일(오후 5시~7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11대 임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11대 임원진은 불법 흥포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회 장 광혜 무문

고 문 자용(17기), 법운(9기) 자 문 위 원 진우(3기), 청암(24기), 덕인(7기)

명 예 회 장 박담 학명 수석부회장 혜정(41기), 혜진(117기)
부 회 장 원행(19기), 귀영(27기) 사 무 총 장 지담(30기)

총무부장 지련(22기) 재무부장 지선(30기)
기획실장 범정(21기) 대 변 인 진성(39기)
수석감사 덕성(5기) 감 사 총산(41기)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혜성(35기) 학술분과위원장 성담(26기)
포교분과위원장 보덕(21기) 연해(무료)결핵분과위원장 광덕(33기)
기획분과위원장 혜인(23기) 문화분과위원장 혜진(21기)
의례분과위원장 명원(37기) 인권분과위원장 지행(15기)
각 기수 :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각 기수 : 총무는 당연직 이사

사무실 :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114호
전 화 : 02)735-1053, 사무총장 지담 010-2313-5671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